



LG전자·LG트윈스 수호천사기금 전달



수호천사기금은 LG전자와 LG트윈스가 2006년부터 공동으로 진행해온 사회공헌프로그램으로 박용택 선수는 안타 1개당 3만원씩, 오지환 선수는 안타 1개당 5만원씩 적립한 기부금에 LG전자가 동일한 금액만큼 추가 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12월 15일 어린이병원 임상제1강의실에서 LG전자와 LG트윈스가 함께 '수호천사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올해 어린이병원후원회에 전달된 수호천사기금은 총 2천여만원으로 터프팅 장염을 앓고 있는 남매의 치료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어린이병원학교, 아이스크림 홈런과 사회공헌협약



12월 4일 어린이병원학교(교장 신희영 교수)와 시공교육의 초등전과목학습 브랜드인 '아이스크림 홈런'이 사회공헌협약을 체결하고 활동에 나섰다. 이날 행사는 아이스크림 홈런의 최형순 부사장 등이 참석했으며, 학습기 지원협약서 교환과 함께 아이스크림 홈런의 초등학생회원이 올 한해 기부를 통해 마련한 1,900여만원의 후원금 전달식도 진행됐다.

어린이병원 특성화센터 (4) - 소아청소년 심장센터- 연간 500례 수술, 국내 소아심장수술 주도



소아청소년 심장센터(Heart Disease Center for Children and Adolescent)는 1950년대 말 이후 심장질환 특히 선천성 심장병을 가진 아이들을 치료하는 데 국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

무엇보다 경험이 많고 숙달된 소아청소년 흉부외과 의료진은 매년 500례의 심장수술을 시행하고 있고, 사망률은 평균 1.4%에 불과하여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저체중 미숙아의 심장수술법은 물론, 여러 복잡 난치성 심장기형의 수술법을 개발하고 성공하여 국제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데 이는 풍부한 임상지식과 기술을 갖춘 소아심장과, 소아흉부외과, 영상의학과, 소아마취과 및 태아센터의 유기적 협진에 의해서 이룬 성과로 볼 수 있다.

현재 센터에는 13명의 교수(소아청소년 심장분과 4인, 소아청소년 흉부외과 4인, 영상의학과 2인, 소아마취과 2인, 병리과 1인)와 2명의 소아청소년심장분과 전임의, 2명의 소아흉부외과 전임의 그리고 3명의 소아심장 전문간호사가 참여하여 세계 최고수준의 의료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10여편 이상의 SCI문헌을 발표하여 관련 분야 학문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제진료를 확대하여 저개발국가에의 원조적 성격의 심장병치료와 해외 선진국 환자들의 국제진료도 확대하여 치료하고 있다. 또한 선천성 심장병을 포함한 심장질환의 발병기전과 치료방법의 발전을 위해 폭넓은 연구활동을 펼치는 등 해외의사들이 가장 방문하고 싶어하는 센터로 거듭나고 있다.



'네트워크 KOREA 201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



학교병원의 이번 말레이시아 진출건과 같이 잘 연구개발된 콘텐츠와 네트워크가 결합한 사례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며 의료네트워크 분야의 발전을 선도해온 분당서울대병원의 노력에 박수를 보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하고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가 주관한 '네트워크 KOREA 2014' 행사에서 최고상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행사는 '네트워크 산업의 날'을 맞아 공공기관 및 관련 공무원과 네트워크산업 종사자들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네트워크 장비산업 인력채용회와 네트워크 KOREA 컨퍼런스를 통해 여러 성과가 공유되고 우수인력 확보의 기회가 주어졌다. 네트워크 산업은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기간산업인 만큼, 서로 상생하며 국가발전을 위해 기여하자는 각계 인사들의 격려사와 축사가 이어졌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의료응용분야 네트워크 기술개발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 11월 말레이시아 최고 수준의 병원 두곳과 연이어 MOU를 체결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국가간 의료협력관계 강화는 물론, 네트워크를 통한 국가원격 의료교육과 국산 네트워크 장비진출 지원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행사에 참석한 한호성 암뇌신경진료부원장은 "병원의 가장 큰 비전인 세계 의료의 표준 선도과 국민을 위해 일하는 병원, 이 두가지를 한꺼번에 이뤄낼 수 있어서 기쁘다"고 전했다.

시상식에서 행사 관계자는 분당서울대

경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개소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 경기지역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오창완 센터장)로 지정되어 12월 5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진료에 들어갔다.

등 심뇌혈관 분야에서 가장 선도적인 병원으로 평가받고 있어 인구 천만의 경기권역 환자들에게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각 지역의 거점 대학병원을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해 전문적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뇌혈관조영술과 심장혈관조영술을 동시에 시행할 수 있는 '통합혈관조영실'을 국내 최초로 도입하는

에볼라 대응 민관군 합동 모의훈련 실시

11월 28일 에볼라바이러스병 대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현장대응 모의훈련'이 실시됐다.

리본부,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장, 국가 지정격리병원장 등 150여명이 동참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중심으로 실시된 이날 훈련은 실제상황을 가정해 재난안전본부 재난안전정책위원회를 소집, 질병관

특히 미리 촬영한 에볼라바이러스병 모의훈련영상을 시청하고, 환자이송에서부터 격리, 치료 등 상황별 해법을 찾는 토론방식으로 진행됐다.